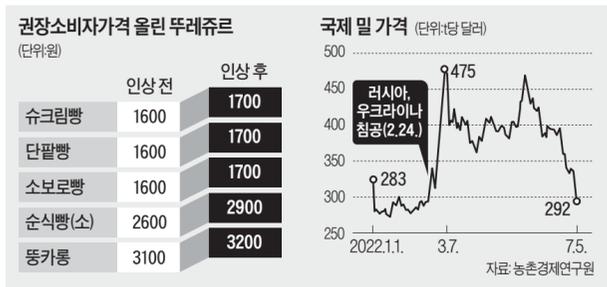


뚜레쥬르도 가격 인상 ... 속도 붙는 '빵플레이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단팻빵, 식빵 등 80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다. 작년 초 한 차례 올린 이후 1년 반 만의 가격 인상이다. 글로벌 원·부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용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다. ◆80여개 품목 평균 10% 인상



6월 식품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지난 4일부터 80여개 품목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평균 9.5% 올렸다. 단팻빵, 소보로빵, 슈크림빵 등 소비자가 꾸준히 찾는 제품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6.2%) 비싸졌다. 순식빵(소형 기준)은 2600원에서 2900원(11.5%)으로, 동카롱(필링을 많이 채운 마카롱)은 개당 3100원에서 3200원(3.2%)으로 인상했다. 케이크류도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였다.

파리바게뜨 이어 평균 9.5% 올려 설탕·계란에 유가·인건비까지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못 버터

“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미치는 하반기엔 밀 수입가격 더 썰릴 것”

뚜레쥬르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은 이날 중순부터 가격 인상이 반영될 전망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결정할 권장 소비자가격을 재량껏 판매가에 적용할 수 있다. ◆“빵값, 하반기가 더 문제” 뚜레쥬르에 앞서 SPG그룹이 운영하는



루비율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가맹점주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며 “국내외 원·부재료 가격 폭등과 가공비, 물류비 등 제반 비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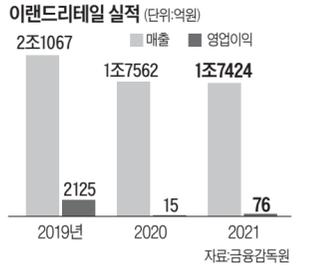
파리바게뜨도 지난 1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1년 만에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빵류와 케이크류 66개 제품 가격이 평균 6.7% 인상됐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산빵(봉지 빵)도 마찬가지다. SPG그룹은 지난해 말 양산빵 22종 가격을 평균 8.2% 높였고, 롯데제과도 지난 5월 8종의 제품 가격을 올렸다.

주요 밀 수출국이 수확기를 맞이하면서 국제 밀 선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런데도 국내 밀 수입 가격은 하반기에도 계속 올릴 것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선물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불어난 식량 선물 가격 급등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 예가다. 식품업계에 “쉽지 않겠지만 내년은 돼야 밀 가격 안정세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제 정부 출범 직후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밀을 내린 건 그만큼 ‘원재료 압박’이 극심했다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내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랜드리테일, 3개사로 나뉜다

10월 물적분할 ... 22일 주총 의결 마켓·패션·패아내 독립법인 설립 리테일은 중간지주사로 임대 사업



이랜드리테일은 유통사업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퍼마켓(대형 슈퍼마켓), 패션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날 29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오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분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은 하이퍼마켓 사업 부문과 패션브랜드 사업 부문을 떼어내 각각 이랜드홈푸드와 이랜드글로벌패션이란 신규 법인으로 전환한다. 분할준속회사 이랜드리테일은 특정매입 사업 부문을 통해 입점 수수료 및 임대 수익을 올린다. 부동산 개발 및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중간지주회사 역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랜드홈푸드는 김스클럽과 NC식품관을 운영하며 오아시스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신선식품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오아시스마켓에 33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외식사업 부문인 이랜드이츠의 운영 부문과 협업을 가정간편식(HMR) 부문 및 외식 식재료 조식 부문에

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분할신설회사는 금융 차입금 없는 무차입 회사로 시차해 재무 건전성도 우수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랜드글로벌패션은 40여 개의 패션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 직수입 사업 전문성을 강화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물적 분할을 계기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만큼 그룹 외부의 온·오프라인 채널도 사업을 넓히는 게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사업 부문 재편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분할된 신설회사들은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 경영의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의사 결정의 속도가 올라가고 투자 부문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3대 이슈·5대 과제 담아

롯데쇼핑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롯데쇼핑이 전체 사업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쇼핑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인건권 존중 경영을 ESG 경영을 위한 3대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ESG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5대 과제(리얼스, 리너지, 리유스, 리조이스, 리바이브)도 정해 보고서에 담았다.

롯데쇼핑은 올해 안에 연도별 탄소 절감 목표 및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87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6.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해 온실가스 280t을 감축했다.

또 협력사와 ESG 동반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더 좋은 지구,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진심 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홈 헬스케어 플랫폼' 도약 선언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보' 출시 로봇처럼 두 다리 따로따로 움직여 '생체정보 측정 맞춤형 리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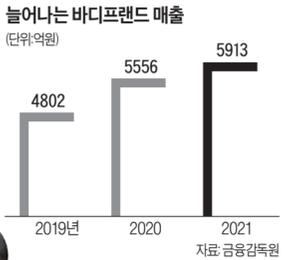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보'를 시연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제공

6월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안마의자 신제품 '팬텀 로보(Phantom Robo)'에 올라 '장요근 이완'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안마의자가 체형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스캔이 끝나자 이내 다리 모듈 길이가 자동 조정되면서 안마의자가 뒤로 천천히 늘어났다. 여는 제품과 달리 오른쪽은 올라가는 반면 왼쪽은 내려가는 등 다리 모듈이 분리되면서 장요근과 주변 부를 스트레칭했다.

세계 1위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가 다리 모듈이 분리되는 안마의자 신제품 팬텀 로보를 6일 선보였다. 두 다리 안마부가 로봇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안마의자가 상용화된 건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다.

다리 모듈이 독립적으로 움직인으로써 종전에 자국이 어려웠던 장요근과 이완, 햄스트링을 비롯한 코어 및 하체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는 게 특징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탓에 굳기 십상인 이들



근육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팬텀 로보가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사이클 타는 동작으로 부류와 고관절 주위 근육을 이완시키는 '사이클' 모드와 허리 부위를 트위스트해주는 '롤링 스트레칭' 모드도 탑재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메디컬R&D센터 소속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식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팬텀 로보에 탑재된 안전센서는 15개로 종전 대비 세 배 확대됐다. 움직임을 증 역동적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안전성을 강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작동 중 전원 공급이 끊길 경우 버튼 한 번에 위치가 원상복귀되는 '정전보호버튼'과 저온화상 방지 기능도 적용됐다.

지상규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사진)은 “팬텀 로보는 헬스케어 로봇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안마의자”라며 “로봇형 안마의자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마사지를 받으며 각종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자극 반려견 입욕제 몽스파 동물외품외품 인증 허가 받아

▶ 으뜸종기 반려동물용품 스타트업 바스몽

반려견은 피부 질환에 취약한 편이다. 피부가 외부 물질을 쉽게 흡수하는 반면 배출은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용품 스타트업 바스몽은 반려견의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00% 천연 원료로 개발한 강아지 입욕제 '몽스파(사진)'를 선보였다. 몽스파는 탄산 반입으로 반려견의 모공 사이를 자극해 각질과 죽은 털을 제거하는 제품이다.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피부 보습도 한층 강화해 건강한 피부 관리를 돕는다. 바스몽은 동물외품외품 제조 허가를 보유한 전문 제조사에서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몽스파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동물외품협회로부터 동물외품외품 정식 인증 허가도 받았다.

몽스파는 후각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천연 아로마 오일을 혼합해 제조한다. 정제, 재증류, 혼합 등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에센셜 오일이 부여되는 '아로마테라피' 등급의 아로마 오일만 사용한다. 계면활성제, 유화제, 방부제 등 화학 성분은 쓰지 않는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EWG가 제시한 가장 낮은 유해 성분 등급을 뜻하는 'EWG 그린' 등급의 자연 유래 성분과 독극물 함유량이 0.1 이하인 몽스파 200g 제품은 체중 5kg의 소형견이 10회 쓸 수 있는 양이다. 바스몽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늘의집 등 30여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몽스파를 판매 중이다. 지난 4월에 열린 '2021 반려동물 제품 전시회'에 몽스파가 참가했다. 몽스파는 후각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천연 아로마 오일을 혼합해 제조

한다. 정제, 재증류, 혼합 등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에센셜 오일이 부여되는 '아로마테라피' 등급의 아로마 오일만 사용한다. 계면활성제, 유화제, 방부제 등 화학 성분은 쓰지 않는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EWG가 제시한 가장 낮은 유해 성분 등급을 뜻하는 'EWG 그린' 등급의 자연 유래 성분과 독극물 함유량이 0.1 이하인 몽스파 200g 제품은 체중 5kg의 소형견이 10회 쓸 수 있는 양이다.

바스몽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늘의집 등 30여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몽스파를 판매 중이다. 지난 4월에 열린 '2021 반려동물 제품 전시회'에 몽스파가 참가했다. 몽스파는 후각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천연 아로마 오일을 혼합해 제조

<p>부동산</p> <p>강남 협곡역세권 신축부지</p> <p>유종인구 다, 코너 입지</p> <p>02-365-3000</p>	<p>강남 협곡역세권 신축부지</p> <p>유종인구 다, 코너 입지</p> <p>010-2678-8210</p>	<p>강남 협곡역세권 신축부지</p> <p>유종인구 다, 코너 입지</p> <p>010-9291-4224</p>	<p>신분당선 초역세권 수익용 빌딩</p> <p>★전속권★ 대500㎡/ 건3,200㎡</p> <p>02)2038-2119</p>	<p>★호텔교환★</p> <p>●분양상가 5.6.7.8층</p> <p>010-5480-1356</p>	<p>자전거공업사 매매</p> <p>현재 운영중 (검사소가능)</p> <p>02) 543-0750</p>	<p>부동산 매각</p> <p>연신내역 출구상(상업지역)</p> <p>02-517-2271</p>
<p>상장회사 관련 투자하실 분</p> <p>▶ 은행 정기예금 금리대비 '최소' 5배 이상 수익 (10억당 月1,500만)</p> <p>02-566-1515</p>	<p>남여 동업자 5억 求</p> <p>년매출 50억이상 가능한</p> <p>033-264-8603</p>	<p>당좌법인 양도 양수</p> <p>잔고증명 예금</p> <p>010-6708-9890</p>	<p>이사점·화물운송 전문</p> <p>전국운송가능 ☎ 1811-6563</p> <p>010-6700-2424</p>	<p>부동산 직원모집</p> <p>지역: 강남</p> <p>010-4356-1661</p>	<p>부동산 투자자 모집</p> <p>▶ 100% 근저당/고수익 배분</p> <p>010-2840-7673</p>	
<p>★투자자 모심★</p> <p>비상장 주주 및 부동산 개발사업</p> <p>010-5901-4033</p>	<p>결산보고서 공고</p> <p>2022년 7월 7일</p>	<p>분할 합병 공고</p> <p>2022년 7월 7일</p>	<p>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p> <p>2022년 7월 7일</p>	<p>합병 공고(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p> <p>2022년 7월 7일</p>	<p>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p> <p>2022년 7월 7일</p>	<p>세계의 부를 거머쥔 유대인이 '어린 부자'를 키우는 법</p> <p>010-2840-7673</p>